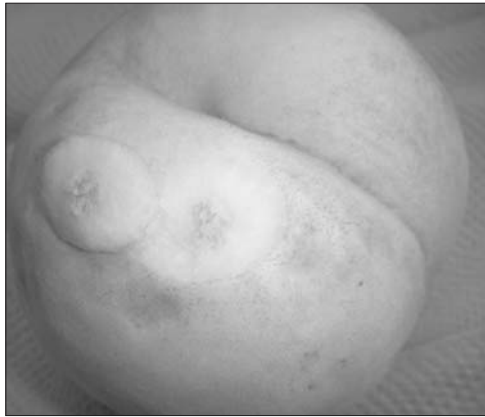


수확기 맞은 복숭아, 노린재 피해 막아야

농진청, 8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만생종 복숭아...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적용 약제 뿌려 집중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8월 중순부터 시중에 나오는 만생종 복숭아의 수확시기를 맞아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 '노린재' 주의를 당부했다. 복숭아는 수확시기에 7월 중순 이전 수확하는 조생종,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수확하는 중생종, 8월 중순 이후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구분된다. 복숭아 즙액을 빨아 먹어 해를 끼치는 노린재 피해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통 4월 초에서 10월까지 나타나는데, 복숭아 열매가 익어가는 생육 후기로 갈수록 발생 밀도가 급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린재가 즙을 빨아 먹은 부위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온다. 그 부위를 얇게 썰어보면 과육이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노린재가 즙을 빨아 먹은 부위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온다. 그 부위를 얇게 썰어보면 과육이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노린재가 즙을 빨아 먹은 부위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온다. 그 부위를 얇게 썰어보면 과육이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노린재가 즙을 빨아 먹은 부위에서는 진액이 흘러나온다. 그 부위를 얇게 썰어보면 과육이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 적용 약제를 뿌려야 한다. 과수원 인근에 집합 유인물질(페로몬트랩)을 설치하면, 노린재를 예방 관찰하거나 대량 포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린재가 선호하는 콩 등을 과수원 주변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방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희희 과장은 "노린재는 과수원 주변 야산 나무 등에서 번식하다 복숭아가 익을 때 과수원으로 들어와 피해를 준다. 수확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집중적으로 방제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린재 방제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risda.go.kr>) 농약 검색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민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캠페인

전북농협, 전북현대 축구 관람객 대상 '아침밥 먹자' 호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7일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전북현대 축구 경기장을 찾아 관람객을 대상으로 '아침! 밥심! 전북! 쌀심!' 슬로건을 외치며 전북특별자치도민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아침밥 먹는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면 최근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어려움 해소에 기여함을 호소하며 전북 특별자치도 대표 쌀 심리함미 5,000개(2.5t) 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농협 모든 임직원이 쌀 소비 촉진 및 홍보 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민 모두가 아침 한 공기의 밥을 먹는다면, 하루 약 88톤, 연간 약 3만 2천톤의 쌀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로 건강한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홍콩 식품박람회 참가... 농수산 홍보관 운영

전북자치도 7개 기업 참가... 약 85만불 수출 상담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홍콩 및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 전시 센터에서 열린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약 3만불의 샘플계약포함 약 85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 식품업체는 7개 기업(4개 품목)으로 선식류, 곡수류, 닭가슴살, 떡볶이, 계장, 김, 간편식 등의 제품을 홍보·전시했으며 홍콩 및 중화권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홍콩은 펜데믹 이후 홍콩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향후 건강관리와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주제로 한 식품 트렌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관에 참가한 기업들은 홍콩 및 중화

권 바이어들과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주에서 김을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홍콩 현지 바이어인 B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약 3만불의 샘플 계약을 진행하고, 익산에서 닭가슴살을 생산하는 C사의 경우 홍콩 식재료를 납품하는 바이어와 미팅이 이루어져 홍콩 수출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A기업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박람회 참가를 통해 더욱 더 느끼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홍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식품이 홍콩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홍콩 및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5~17일까지 홍콩 컨벤션 전시 센터에서 열린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약 85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및 중화권 전역에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추가 지원을 통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 2024년 을지연습 실시

22일까지 실제훈련으로 비상 시 위기대응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오전 7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본부는 비상소집 훈련 후 을지연습 최종상황 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시대비연습에 들어갔으며, 연습기간 중 비상사태 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시상황에 부합한 도상훈련, 소산·이동점검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소산·이동훈련이란 적의 공습과 화생방 공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기관의 업무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류·장비·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이동 훈련이다. 특히, 21일에는 공사 핵심시설인 남원시 금공저수지 제방이 유실되고 사통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공조강화로 신속하고 안전한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방호 실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JB슈퍼씨드적금' 이벤트 진행

가입고객 대상, 내달 30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JB슈퍼씨드적금'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운의 톨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전북은행 '슈퍼씨드적금'에 가입하고 행운의 톨렛을 돌리는 모든 고객에게 △배달의민족 5만원 쿠폰(5명) △도미노피자 세트(1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50명) △100~1,000원 랜덤캐시

백을 지급한다. JB슈퍼씨드 적금은 기본금리 연 3.3%의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 정상 납입 기준 매월 1개의 씨드를 제공하며 무작위로 제공된 씨드가 행운의 슈퍼씨드인 경우 연 10.0%의 우대금리를 더해 1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속뱅크' 또는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환영 밝혀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해야

중소기업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행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다행스러운 결정이었

다고 피력했다.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